불교문화산업의 빛과 어둠

불교문화산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옷 안에 보배를 지닌 것을 모른 채 궁핍하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이의 비유가 정곡을 찌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질과 양에서 차지하는 불교문화의 위상에 비해 현실은 너무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템플 스테이를 비롯하여 일부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 등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불국사마저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고 있는 기념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문화·캐릭터상품 조악 외제 판쳐
기획·개발·유통 등 장단기계획 필요

서울 조계사 주변 불교관련 용품 가운데 우리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이라 할 만큼 찾기 어렵다.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조악(粗惡)하여 외국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보이기 두렵다.

한 마디로 불교문화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불교계 전반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찰의 이미지 통합을 서둘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찰마다 사격(寺格)에 어울리며 특성을 갖춘 문화상품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는 문화상품의 개발과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분야나 단체와 협력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단계별로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한다. 왜냐하면 문화상품의 개발은 결코 즉흥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이템의 선정과 그리고 상품의 디자인(포장 포함)은 물론이지만 상품의 홍보, 유통과 판매 그리고 개발비를 포함하여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격책정 등 시장(市場)경제에 기초하여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상품의 개발은 우선 우리 일상과 친근한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좋을 듯하다. 불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초와 촛대를 예로 들어보자. 형태나 크기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또 포장도 수요층의 기호에 맞게 세련되게 꾸민다. 또한 그을음을 가급적 줄이고 초가 타면서 각종 향내가 피어나도록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불교의 다양한 무늬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벽지, 장식타일, 보도블럭 등 건축자재에도 활용하며, 포장지를 비롯한 각종 패키지 그리고 나아가 한식 전문점의 실내장식도 전통 무늬나 장엄구를 활용하여 실내장식을 꾸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연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템플스테이 '명품'된다

지정·운영 등 38곳 선정, 운영·관리 업그레이드

조계종, 자문위원단도 구성

그 동안 사찰 재량에 의해 운영되던 '템플스테이'가 조계종 차원에서 운영 · 관리된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업단(단장 일관)은 시설 · 프로그램 · 운영자 및 입지적 조건 등이 충족돼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공주 갑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등 11곳을 지정운영사찰로 5월 12일 선정했다.

또한 장단기 외국인 선체험이 항시 가능한 외국인 선센터 3곳과 지정운영사찰로서는 자격조건이 부족하지만 개선여부에 따라 지정운영사찰 운영이 가능한 일반운영사찰 24곳도 함께 선정했다.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우선 지정운영사찰을 중심으로 관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 교육 및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해 나간다.

해남 대흥사 새벽숲길, 해남 미황사 자유템플스테이, 영천 은해사 야간산행, 공주 마곡사 중앙대 템플스테이 등 각 사찰의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한편, 템플스테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매년 1회 운영사찰 재지정과 해지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찰의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운영사찰의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템플스테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다.

템플스테이는 지난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때 숙박난 해소 방안으로 실시됐으나,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포교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 미비와 경험부족으로 일관된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4월 이를 전담 운영할 템플스테이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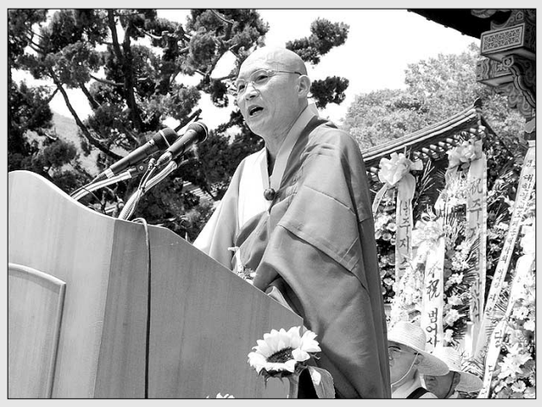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사업단장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제 구축을 중점으로 종단과 사찰 그리고 참가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찰 공간 및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운영사찰개념	사찰명
지정운영사찰	공주 갑사 · 마곡사, 경주 골굴사, 김천 직지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해남 대흥사 · 미황사, 양양 낙산사
외국인 선센터	논산 무상사, 대전 자광사, 강화 국제연등회관
일반운영사찰	▲서울-조계사, 봉원사(태고종), 탑주심인당(진각종), 묘각사(관음종) ▲경기-흥국사, 신륵사, 사나사 ▲충남-수덕사, 부석사(서산), 학림사 ▲경북-관음사, 은해사, 운문사, 봉정사, 대승사, 기림사 ▲경남-흥법사, 해인사, 옥천사 ▲전남-송광사(순천), 화엄사 ▲전북-송광사(완주) ▲강원-구룡사, 백담사 만해마을

"전법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대성 스님 범어사 주지 진산식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진산식이 5월 11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진산식에서 대성 스님은 "사회변화에 걸맞는 포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정법이 살아 숨쉬는 전법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진산식에서는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희생자 돕기 지원금을 종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정쟁 삼가…새 정치를"

조계종·천태종·실승 등 환영 논평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과 관련, 조계종과 천태종,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각각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대변인 여연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이름의 논평에서 "이번 기각 결정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며 "여야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심기일전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총무국장에 수암 스님 등
조계종 총무원 국장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5월 10일 총무국장, 기획국장 등 총무원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장 스님은 총무국장에 수암 스님, 기획국장에 정행 스님, 감사국장에 본해 스님, 사회국장에 환적 스님, 조사국장에 혜일 스님, 서국장에 효응 스님, 상임감찰에 정안 · 정업 · 신해 스님, 호법과장에 각우 스님, 조사과장에 서호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우 기자

본사사령

조용수 박익순
命 편집국 취재부 기자

노병철 유철주
김강진 이은비
命 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송화준
命 출판부 사원

권양희
命 인터넷분야 수습

2004년 5월 10일(박익순 5월17일자)

문화재보호법 개선 공청회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소가 주관해 5월 1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문화재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재보호법을 기본법과 개별법률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법에서는 장기적인 문화재 정책 방향을, 개별 법률에서는 유형별 문화재에 적합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기본·개별 법률로 나눠 정책과 규정 정비하자" 실무 혼돈 가능성 지적도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기본법에서 △국가적 이념에 입각한 문화재 개념 △비지정문화재와 잠재적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범위설정 △문화재 실태조사와 정보화사업의 제도화 △도난문화재 환수 등에 대비한 문화재 목록 확보 △점(點)에서 면(面), 면에서 입체로의 문화재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문화재 정책의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법률의 경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으로 구분해 문화재의 유형과 업무에 따라 독립 법률로 구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형문화재 법률에서는 건조물, 동산, 사적 등으로 장을 구분해 전문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적인 분류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점을 찾는 전문화된 법률을 수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불교문화재 전문가는 개별 법률로의 분법이 꼭 필요한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전각이라는 '건조물문화재' 속에 불상 등의 '동산문화재'가 놓여있고, 사찰 전체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어, 결국은 개별법률 각각에 대한 모든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분법 할 경우 개별 법률에 대한 시행령 수가 더 늘어나, '일선 공무원과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유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99일 지혜의 등불 299연등 소요비용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 구호 성금으로 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께 드리는

299일 지혜의 등불 발히기 봉행

우리절에서는 오는 5월26일부터 2005년3월21일까지 299일 동안 관음전에 자비를 들여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위해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정당 · 종교 · 지역 · 정책 · 사상 등을 뛰어넘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으로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칭송받는 그런 입법위원들이 되십시오.

■ 참고자료
생전예수재를 봉행할 때 명부세계 열 분의 십대왕을 비롯하여 사자들과 권속 등 모두 299분의 신위를 모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겁 뒤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세 번의 대법회를 열어 모두 299억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299분의 신위와 299억의 제도중생의 수는 미묘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와 맞아떨어집니다.

일원곡 9
지 장 경

짓고쓴이 : 고불고조
옮겨쓴이 : 지암일원
요모조모 : 동봉정휴

! 우리절에 오시면 무료로 보시해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